



■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결과 보도(2017.02.15.)

단체 대선 공약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습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2월 7일(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함.
-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의 축사로 시작, 백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대선 교육 공약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 확인.
- ▲ 제1세션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제2세션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 제3세션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순으로 진행. 사교육걱정이 제시한 11개 대선 교육 공약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함.
- ▲ 사교육걱정은 앞으로 11개 공약을 각 캠프에 보내 공약 채택 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대선 후보들의 교육 공약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시민평가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2월 7일(화),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번 대선에서 반영되길 기대하는 3개 세션의 11개 대선 교육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로 대선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이 유력한 가운데 각 정당의 대선 후보자들은 현재 공약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창립 이후 대선 기간 때마다 여야 후보들의 교육 공약 속에 사교육 경감과 관련해 좋은 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교육 관련 공약을 발표해 제안하고, 이후 시민들과 함께 각 당 후보들의 공약들을 비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표하는 ‘시민공약평가단’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사교육걱정은 이번 19대 대선에서도 같은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컨퍼런스도 그 활동의 시작 의미가 있습니다.



(좌: 사회를 맡은 윤지희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우: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을 가득 메운 청중)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의 축사로 시작, 백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대선 교육 공약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함.

컨퍼런스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과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의 축사와 제1세션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제2세션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 제3세션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캠프의 공약 개발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 학부모 등 백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대선 교육 공약에 대한 시민의 열망과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축사를 맡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우리 사회의 교육원리는 수직·서열화된 대학 및 고교 체제에 있으며, 아이들에게 사회의 상층부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시키고, 승자에게 엄청난 차등적 보상을 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런 사회원리와 교육원리가 시효를 다했으며,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은 2017년은 다음 세대의 미래와 새 문화를 여는 교육과 정치의 연계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교육을 변화하기 위한 주권자의 역량 결집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좌: 측사 중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우: 측사 중인 강대인 대화문화아카데미 원장)

■ 제1세션: 전문가들은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네트워크’가 꼭 막힌 교육 현실을 여는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이기정 서울 미양고 교사)하고, 입법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

제1세션은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의 주제로,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승현 정책위원장은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입학보장제’를 통해 입학성적에 의해 대학 서열이 정해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대학입학보장제에 참여하는 대학 ‘상생대학 네트워크’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해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질 높은 대학들로 만들며, △‘출신학교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취업과 입시에서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받지 않게 하고, △고교 입시를 ‘선지원-후추첨 방식’으로 전환하며, 고교 체제를 대폭 단순화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1세션 ‘입시 경쟁 부추기는 학교 서열화 해소 4대 공약’ 중,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정책위원장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해 토론을 맡은 이기정 서울 미양고 교사는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네트워크’가 최상위권 사립대학의 참여를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와 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이룰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입시의 논리가 교육을 압도하는 현실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하며, ‘대학입학보장제’와 ‘상생대학

네트워크'가 꼭 막힌 길을 여는 돌파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현섭 전 강원대 총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교육 정책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입법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는 핵심 담론을 더욱 부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상생네트워크 참여 대학 수를 늘릴 방안, △참여 대학의 질을 담보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 △여러 공약 중 먼저 현실화할 수 있는 공약을 선별하여 단계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자세한 시민 의견은 첨부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 제2세션: 전문가들은 학원 심야영업 제한에 찬성하는 학부모가 많음을 제시(김영철 상명대 교수)하고, 학습의 자유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영유아 인권법'을 적극 지지(임재택 부산대 명예교수)함.

제2세션은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의 주제로,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제2국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구본창 국장은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을 통해 아이들의 쉼과 건강을 보장하고, △나쁜 사교육의 대표 상품인 '선행교육 상품' 홍보 및 판매를 금지하며, △영유아 시기에 한글, 영어 조기교육 및 과도한 학습 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영유아 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2세션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공약' 중,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제2국장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해 토론을 맡은 김영철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서울시 중고등학부모 설문조사(2016) 결과, 약 절반의 학부모가 ‘밤 10시’를 심야영업 제한시간으로 제시하였고, 밤 10시 이전 시간대를 적절한 영업제한으로 제시한 학부모도 약 30~40%에 이르렀다는 것을 언급하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전국에서 동일하게 학원 심야영업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진우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 심야 영업시간 제한’에 찬성하며, 학습의 자유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무한 경쟁의 상황에 처한 학생들의 약점을 틈타 실제로 학생의 건강을 저해하는 해로운 사교육은 규제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임재택 부산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는 유아교육의 이념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홍익인간의 이념과 아이들의 몸과 마음·영혼을 살리고 사람공동체와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아이 살림·생명 살림으로 돌아가야 함을 주장하며, ‘영유아 인권법’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자유토론에서 한 시민은, ‘나쁜 사교육’ 문제 해결이 시급하지만, 좋은 사교육 문제라 할지라도 불평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러한 사교육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다른 시민은 방대한 지식 위주의 교과서와 시험 방식이 존재하는 한 사교육 기관의 선행 교육이 성행할 수밖에 없다며, 교과서를 양적으로 축소하고 지식 암기식 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 제3세션: ‘학생 성장 평가제’를 위한 교사의 역할을 강조(곽병선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하고,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 계획을 주문(박도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함.

제3세션은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의 주제로,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장의 발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안상진 소장은 △자격보다 실력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고, △메마른 객관식 점수와 등급 대신 학생의 학습 성장 기록을 담은 ‘학생 성장 평가제’를 법제화하며,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고, △수학과 영어 관련 학교 안팎의 제도를 개선해 수포자·영포자 없는 학교 교육을 실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제3세션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 4대 공약’ 중,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소

장의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토론을 맡은 박병선 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학생 성장 평가제’와 관련해 학생 개인 발달기록에 대한 교사의 진정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신뢰받도록 교사에게 중심역 할과 이에 상응하는 책무를 부과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자유학년제는 시험점수 따기 교육에서 상상력 중심 교육으로 가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대안이라고 강조하며, 자유학년제가 전면적으로 조기에 시행되도록 모든 조치가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박도순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선진국형 교장 공모제’와 ‘학생 성장 평가제’는 학교 교육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으로 적극 지지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학생 성장 평가제’ 등은 상급학교의 변화와 학부모의 기대 변화 없이는 달성이 어려우 며, 구체적 로드맵과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문했습니다.

■ 사교육걱정은 대선 후보들이 어떤 교육 공약을 펼치는지 시민평가단 활동을 펼칠 예정.

사교육걱정은 ‘사교육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19대 대선, 전문가 초청 컨퍼런스’를 통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교육을 바꿀 강력한 공약을 주문하는 시민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사교육걱정은 11개 대선 공약을 좀 더 세밀하게 보완할 뿐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학교 걱정 없는 세상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어떤 공약을 얼마나 반영하는 지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공약 평가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컨퍼런스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

2017. 2. 15.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이슬기(02-797-4044/내선번호 502)
소장 안상진(02-797-4044/내선번호 509)